

# 장성군, '인공지능 CCTV'로 보고 듣는다... 안전망 더 '츙츙'

##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 사용기관 선정... 지능형 이상음원 분석 시스템 도입 예정

장성군이 조달청 주관 '혁신제품 시범 구매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혁신제품 시범구매 공모'는 조달청이 직접 구매한 혁신적인 제품을 공모 선정 기관에 시범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해당 공모에 선정된 장성군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이상음원 분석 시스템을 통합관제센터에 도입할 계획이다. 국비 6250만 원 상당을 확보한 셈이다.

지능형 이상음원 분석 시스템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각종 위험 음원을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고성방가 △재해·재난 구조 요청 △총동음·경적음 등 위급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소리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인식하고, 연동된 통합관제센터 카메라가 즉시 소리 나는 곳을 비춰 관제



요원에게 알린다. 이전까지 장성군은 영상 분석에만 인공지능을 활용해 왔다.군은 2022년부터 지역 내에 1800여 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인공지능이 영상에 감지된 내용을 화면에 띄워 관제요원이 상황에 맞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여기에 교통량이 많은 사거리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주변 등에 시범적으로 지능형 이상음원 분석 시스템을 도입하면 인공지능에 기반해 영상과 음원을 동시에 분석하게 돼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군정 최우선 과제"임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도입해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장성/황해연 기자**



## 강진군,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 실시

### 한 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따뜻한 강진 만들기

강진군이 제54회 강진 철자축제와 누구나 반값여행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지난 12일 강진읍 상가 일원에서 '친절한 손님맞이 및 바가지요금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축제 기간 관광객 증가에 대비해 합리적인 가격과 친절 한 서비스 문화를 정착시키고, 관광객이 다시 찾는 싶은 지역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음식점 영업주들과 한국외식업중앙회강진군지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위생 적이고 친절한 손님맞이 실천을 다짐 했다. 또한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들도 함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며 지역 상권의 자율적인 동참 분위기를 조성했다.

군은 축제 기간 관광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격표 게시 의무화 ▲숙박요금 사전 고지 ▲메뉴 및 요

금의 투명한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표시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관광객 응대 시 밝은 인사와 친절 한 설명, 청결한 위생 관리 등 기본 서비스 수칙 준수를 안내하고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축제와 반값여행의 성공적인 운영은 외식업 및 숙박업소의 친절과 신뢰에 달려 있다"며 "친절한 서비스 제공과 바가지요금 근절, 투명한 가격정책, 위생적이고 정직한 서비스 실천을 통해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은 강진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앞으로도 위생 환경 개선과 친절한 서비스를 확산,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자율 실천 서약서 징구 및 간담회·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관광객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관광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실 기자**

## 광양시, 광양만권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총력

### 소재·부품·재활용 아우르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구축 기반 확보

있다.

광양시는 수년간 이차전지를 지역 핵심 전략 산업으로 설정하고 산업 기반 구축과 기업 투자 유치, 산·학·연 협력체계 마련 등 특화단지 지정 요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전라남도 와 긴밀히 협력해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과 광양시는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이차전지 산업 발전 및

특화단지 조성 전략을 논의하는 정책 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 2월 11일 전라남도청 서재필실에서 광양시, 나주시 및 광주·전남 지역 10개 대학과 인재양성 업무 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전문인력 양성과 정책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앞으로도 광양시는 전라남도과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정부 공모 절차에 철저히 대비해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자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정책

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차전지는 광양시가 수년간 전략적으로 준비해 온 핵심 산업"이라며 "최근 제기되는 반도체 산업단지 관련 논의와는 별개로, 전라남도과 긴밀히 협력해 특화단지 지정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라남도 및 주요 대학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 전문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특화단지 지정 후에도 산업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차전지 산업도시로 도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광양/신선호 기자**

## 진도군, 월동 배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하세요

### 가입 대상 품목 신규 추가, 9월~10월에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

진도군(군수 김희수)은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에 월동 배추가 신규로 추가됨을 알리며, 지역 농가의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험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현재 78개 품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월동 배추의 재해보험 가입은 오는 9~10월에 지역농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진도군을 포함한 3개 지역을 월동 배추의 재해보험 가입 지역으로 지정했는데, 진도군은 전라남도에서 월동 배추 재배면적의 28%(888ha)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월동 배추 주산지이다.

월동 배추는 9월 중순에 정식해 12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초까지 수확하는 작

물이며, 9~10월 정식기에는 태풍과 폭우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생육기에는 겨울철 저온 피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월동 배추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으로 지정돼, 배추의 주산지이고 월동 배추 재배면적이 넓은 진도군의 농가 경영이 안정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월동 배추를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2~3월에 재해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품목은 농업용 시설 및 시설작물(전국, 2월), 버섯재배사(전국, 2월), 단호박(전국, 3월) 등이 있다. **진도/오재명 기자**

☎ 062-525-9775

## 영암군, 2개 공연예술 공모 유치로 올해 무대 풍성

### 2억2,000만원 확보, 트로트가요센터 연구무용 등 9개 공연 잇따라

올해 영암군 한국트로트가요센터에서 지역 안팎 공연예술단체들의 창작극, 무용, 연극, 가족뮤지컬 등 풍성한 공연이 열려 영암군민의 감수성을 높인다.

영암군이 12월 2개의 공연예술 공모에 선정돼 2억2,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했다.

먼저,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공연 예술 지역 유통 지원사업'에 선정돼 1억 4,000만원으로 우수 공연예술 작품 6편을 유치했다. 이 사업은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된 우수 공연예술 콘텐츠를 지역으로 확산해 지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어 (재)전남문화재단 '공연장협력 예술단체 지원사업' 선정으로 8,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사업은 공공 공연장과 전문 예술단체의 상생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공

연장 가동률 제고, 지역예술단체 안정 창작 환경 조성 등이 취지다.

공모 선정으로 지역예술단체 '더 현음'의 창작, 우수 공연 3건도 영암군민을 찾아온다.

두 공모 선정에 따라 영암군에서는 올해 △6월 더현음제의 창작극 '김장조 흠어진 가락' △8월 더현음제의 창작극 '우리 창가를 부르게 하라', 천하제일탈교작소의 전통공연 '추는 사람 남산' △9월 더현음제의 창작극 '천년의 서 영암에서 아스카까지', DPS컴퍼니의 연극 '보물찾기' △10월 무버의 무용 '안녕' △11월 컴퍼니소설의 전통공연 '퓨전국악밴드날다 심청날다' △12월 극단 즐겨찾기의 가족뮤지컬 '탈이 뭐길래', 오랏차차스토리의 연극 '봄날의 꿈'이 차례로 무대에 오른다. **영암/김희선 기자**

## 2026년 3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 화순군, 3개 과정 운영...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선착순 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19일 지역 주민들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3월부터 화순 어울림센터 내 평생학습센터에서 매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예술·건강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세대 맞춤형 교육과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과정을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학습 만족도 제고를 목표로 구성됐다.

3월에 운영되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원데이 클래스로 진행되는 ▲'천연화장품 만들기' ▲'도어벨 글라스아트' 주 1회 4주 과정으로 운영되는 ▲'웃음꽃 실버 놀이 교실' 등 총 3개 과정이다.

모집인원은 19세 이상 화순군민 총 56명이며, 이 중 '웃음꽃 실버 놀이 교실'은 6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교육 과정은 무료로 운영된다. 수강 신청은 2월 19일부터 2월 28일까

지 화순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다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인 '웃음꽃 실버 놀이 교실'은 방문 접수도 병행한다.

수강생은 선착순으로 확정해 개별 통지하며 대기자는 결원 발생 시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조미화 인구청년정책과장은 "지난해 개소한 화순군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교육 참여 기회를 더욱 확대하겠다"라며, "평생학습을 통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와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홈페이지 및 화순군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접수 및 문의는 화순군 인구청년정책과 평생교육팀(☎061-379-3350)으로 하면 된다. **화순/김종환 기자**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 서울특별시교육청

#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읽고 있는 것보다 더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한들수록 나 자신을 사랑할 것  
헛살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 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억스레 생각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화적인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비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미래의 현재가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색감처럼  
타성에 젖지 않을 것.  
미련을 남기지 않는 것  
늘 그렇듯, 늘 주의를 기울일 것  
알리고 싶은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다는 것  
코자 볼 수 있는 것이니까  
너의 우주와  
소중함을  
좋은 생각으로 나를 채울 것  
정말 멋진 나를 있는 건데  
더 크게 웃을 것  
우어도 보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하게  
잠시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평범한 것은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폰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